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신학 전문, 세션 18, 전달 가능한 속성, 파트 4, 하나님은 영광스럽 습니다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전달 가능한 속성, 5부입니다. 신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하나님의 공유적 또는 공유적 속성에 대한 연구를 영광스러운 주제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럽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관대하고,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의 어떤 진리만큼이나 위대하지만 정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요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은 모든 주요 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인용문, 장엄한 영광, 베드로후서 1:17, 산에서의 변형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베드로후서 1:17처럼 하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이 드문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방식인 듯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다른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용문, 속성 또는 요약 속성, 즉 단힌 인용문을 가리킵니다. Christopher Morgan은 Morgan과 제가 편집한 *The Glory of God* 라는 책 157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말한 것(시편 24:8~10)과 다윗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시편 29:3)이

있습니다. 스테반은 그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사도행전 7:2), 바울은 그를 영광스러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에베소서 1:17).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며, 고린도전서 2:8,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고보서 2:1, 야고보서의 인사말 외에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언급입니다. 성령은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4:14. 사람들이 구절을 적으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4:8-10, 그리고 그는 그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29:3. 스테반은 하나님을 같은 것,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7:2. 바울은 그를 영광의 아버지 또는 영광스러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1:17.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며, 이방 통치자들은 완전히 무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고린도전서 2:8). 그리고 바울도 그를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는 그를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야고보서 2:1). 그리고 성령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면에서 덜 연관되지만, 적어도 한 번은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베드로전서 4:14). 성령은 영광이 성령의 이름에 통합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됩니다.

영광은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현존을 강조합니다. 영광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예를 들어 출애굽을 둘러싼 사건에서 강조됩니다. 영광 구름, 출애굽기 13장과 14장, 16 :7, 20장, 24장.

또한 요한계시록 15:8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13장과 14장, 16:7, 20장, 24장.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영광 구름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모세에게 나타난 것, 출애굽기 3장과 4장,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그리고 장막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29:43,

출애굽기 40:34부터 38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적 임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의미는 언약궤와 관련된 구절, 사무엘상 4장과 5장에도 나타납니다. 성전을 다룬 구절, 열왕기상 8:10-11, 역대하 5장-7장. 에스겔서의 종말론적 성전, 43:1-5.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밝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18, 골로새서 1장과 2장, 히브리서 1장.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16장, 심지어 하늘 자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영광은 성경 전체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여러 속성으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다른 속성의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함, 레위기 11:44, 이사야 6:1~8.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독특성, 이사야 42:8. 권능, 출애굽기 13:21과 22. 출애굽기 16:10~15. 로마서 6:4는 흥미로운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권능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흥미롭군요. 영광이 신의 요약된 속성이기 때문에 신의 다른 개별적 속성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의 영광은 아름다움, 위엄, 선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사용되고, 그의 사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과 2장, 시편 19편. 구원, 출애굽기 13:21-22, 에베소서 1장. 영광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10-12, 출애굽기 40:36-38.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민수기 14:10~23, 민수기 16:41~45, 데살로니가후서 1:8~10).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승리하고,

승리자가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출애굽기 16:7~12, 시편 57:5~11, 이사야 2:10~21).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본성, 그의 현존을 강조하는 더욱 전체적인 사상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13~18, 출애굽기 40:34.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레위기 11:44, 이사야 6:1-8,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 대문자 S,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광. 디모데전서 1:17. 하나님의 영광은 외재적인 것, 즉 하나님의 사역의 파노라마와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전체론적 용어의 많은 속성의 외부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압도적입니다.

그의 영광은 외적인 것, 외적인 것, 자신의 내적 영광에서 나오는 것, 그의 속성, 그의 행위, 그의 본성과 관련된 용어의 많은 속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 행위, 그의 본성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적 영광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본질적인 영광과 그의 외적인 계시된 현현된 영광을 구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 그의 영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이 그의 영광의 표현이며, 그의 임재가 그의 영광의 중심적 의미라면, 영광은 그러한 광범위한 묘사를 포괄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종말과 관련된 다른 성경적 자료도 이해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 심판의 활동이 모두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탄을 자아내기 위해 전시될 다양한 속성을 제공하며, 그러한 속성의 전시는 주요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파라오를 대하는 것과 파라오와 이집트의 신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전적인 독특성과 능력을 인식하도록 행동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자신의 의, 정의, 진노, 능력, 자비, 그리고 영광의 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3:21-26. 로마서 9:20-23.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적어도 세 가지 속성의 궁극적인 전시를 위해 행동합니다. 은혜, 1:6, 12, 14. 친절, 2:4-10. 그리고 지혜, 3:10, 11.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은혜, 친절, 지혜의 속성을 종말에 마침내 전파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은혜, 1장, 6절, 12절, 14절.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친절, 에베소서 2:4~10. 지혜는 하늘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3:10, 11. 이러한 성경적 자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단일 속성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의 영광은 그의 존재 그 자체와 일치하며, 때때로 그의 속성의 일종의 요약으로 기능합니다. 더욱이 영광의 신은 성경 이야기와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개선한 일을 반영합니다.

크리스토퍼 모건에 대해, 저는 그를 제 범죄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 권의 책을 쓰고 편집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침례교 대학교의 신학 교수이자 기독교 사역 대학 학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대한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삼위 일체 하나님은 주로 창조, 형상을 지닌 자, 섭리, 그리고 구속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들과 공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그 *Glory of God* 책에서 Morgan, *Toward a Theology of the Glory of God*를 참조하세요.

이것이 Morgan과 제가 편집한 책의 제목입니다. 다음 문단에서 이 정의의 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삼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뒤를 따르는 모든 것은 외재적이며, 주로 그의 창조, 형상의 소유자, 섭리, 구속 행위, 구속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영광이라는 개념의 또 다른 용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놀랍게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을 그의 백성과 나누십니다.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는 그의 영광을 그들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술에는 여섯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 여섯 가지 측면.

첫째, 영광스러운 삼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 내적, 외적, 외적입니다. 본질적 영광, 외적 영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학적 범주를 연구할 때 가장 근본적인 구분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은 그의 위엄, 가치, 아름다움, 화려함입니다. 그의 외적 영광은 그의 본질적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영광이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는가를 묻는다면, 답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창조물, 형상을 지닌 자, 섭리, 구원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19:1,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시편 19:1.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 곧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8:4, 5.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돌보십니까? 당신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ESV로 가고 싶어요. 시편 8편. 정말 놀라운 시편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인류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받고 통치권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례합니다. 사실이지만, 그것은 더 높은 선, 더 큰 선에 기여합니다. 이 시편의 *sum bonum*은 인간의 명예와 지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 주여,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오 주여,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이것이 노래의 틀이다.

그것이 틀입니다. 당신은 어린아이와 유아의 입에서 하늘 위에 당신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원수들 때문에 힘을 확립하여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손가락의 일을 볼 때, 당신 손가락의 일을 볼 때, 달과 별들, 내가 당신 하늘을 볼 때, 당신 손가락의 일을 볼 때, 달과 별들, 당신께서 그 자리에 두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이제 두 번이나 거시적으로, 그리고 미시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시적으로요. 주님,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미시. 당신은 아기와 유아의 입에서 힘을 정하셨습니다. 거시.

하늘을 보면 놀랍다. 놀랍다. 그걸 감안하면 그는 마이크로로 간다.

당신이 염두에 두고 돌보는 하잘것없는 사람, 필멸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기 지정인 인자는 항상 3인칭으로, 1세기에 그의 청중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자유주의 학자들은 구약 성경 배경의 두 가지

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신성한 다니엘 의 인자. 시편 8:4 의 겸손하고 필멸적이며 제한된 인자. 당신이 그를 염두에 두고, 인자를 돌보시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신-인간입니다 .

그는 다니엘의 인자요 시편 8편의 인자입니다. 그는 신이자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천상의 존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십시오. 당신은 그에게 당신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나머지 시편은 단순히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시작했던 대로 결론짓습니다 . 오 주여,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은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의 창조물에서 외재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류에게 자신의 영광을 각인하여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그와 같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섭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세상과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에 대해 말한 후, 시편 기자는 시편 104 :31에서 주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그의 행하심을 기뻐하시기를, 시편 104:31. 하나님은 그의 구속 행위에서 그의 영광을 알리셨는데, 여기에는 출애굽기, 출애굽기 14:13-18 ,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행전 3:13-15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마도 하나님의 외재적 영광의 가장 중요한 예일 것입니다.

외재적 영광. 이제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4:13~18, 출애굽기 자체는 12 장과 14:13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인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다만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압하게 하여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병 위에 영광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병들에게 영광을 얻었을 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위대한, 그렇다, 사건, 구약의 신성한 사건이라면,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과 분리될 수 없으며, 물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성한 사건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3:13에서 15까지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현관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후에 걸을 수 없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도행전 3:13.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기로 결정했을 때 그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부활에서 자신에게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진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기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이 외재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에는 무언가가 있고, 하나님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재적 영광이죠.

그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재적 영광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 인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종종 상기시키듯이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시편 115:1. 주여,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5:1. 요한계시록 19:1.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큰 무리가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니, 그의 심판은 참되고 공의로우심이니라.

그는 불멸로 땅을 타락시킨 큰 창녀를 심판하셨고,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에게 갚으셨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 속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간 피조물이 아무리 미약하고 죄가 많더라도,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진정으로 새롭지만, Anthony Hoekema가 *Saved by Grace* 라는 책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아직 완전히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것은 그의 내재적 영광과 심지어 그의 영광의 외재적 표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본질적인 영광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의 본질적이고 계시된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115:1.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보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다. 시편 29편, 폭풍우 시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천사들을 부른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천상의 존재들아,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거룩함의 영광으로 주님께 경배하라.

같은 시편에서, 폭풍이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에서 들어와 이스라엘을 휩쓸고 사막으로 나갈 때, 장막이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영광을 외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선한 천사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편에서 나타난 이 작고 하찮은 계시에 영광을 외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9편 1, 2, 9절.

시편 57:5와 11, 그리고 요한계시록 4:8~11, 요한계시록 5:12~14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 오, 그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일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들 자신의 영광에 젖어 계셨습니다.

시편 51편 19절. 그러면 주께서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당신의 제단에 향소가 바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향소나 어린 양, 염소가 필요 없으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분께 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 제도를 정하셨고, 그는 제사와 향의 향기로운 냄새를 기뻐하시며, 그의 백성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즉, 그는 그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려는 미미한 시도를 받아들인다.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섯째, 그리고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들과 공유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14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 미래입니다. 오,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3:18에서,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 이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게 누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든 없든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통해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네 번째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본질적인 영광을 외적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다섯 번째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경배로 그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는 그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은혜로 그의 영광을 그의 백성과 공유하여 그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놀라운 곳입니다.

당신은 성경에 대해 계속 그렇게 말한다고 하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골로새서 3:1,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으니, 2:20.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3:1.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인가?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책임을 다하지 말라는 뜻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같은 장의 후반부, 18절에서 4:1, 3:18에서 4:1 까지, 그는 가정의 규범을 말하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의미는 우리가 문제나 약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 생활과 다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높으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3.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문맥상 의미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4.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서사, 그의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고난을 겪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승천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습니다. 또는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그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고 정확히 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하자면 우리는 하늘에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합니다.

오, 우리는 그와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빼먹었나요? 우리는 그와 함께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는 두 군데 계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재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은 재림의 말씀, 그분의 나타나심이며, 그러면 여러분도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재림이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진짜 재림이요? 아니요. 글썄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이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와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합하여 죄에 죽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와 연합함으로써 죄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고, 또한 그의

부활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로마서 6장의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지만, 지금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잊을 뿐이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합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본질적인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창조, 구원, 그의 형상을 지닌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추는 일, 그의 섭리, 탈출,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일에서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냅니다.

그의 백성은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그의 백성과 공유합니다.

고린도후서 3:18을 인용했어야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베일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분의 고군분투하고, 방황하고, 멈춘 제자들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드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이미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은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제 정경은 제 상상이나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제 정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이 모든 것, 이 모든 영광의 감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충만함과 충분함의 전달입니다.

로마서 11:36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그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골로새서 1:16과 히브리서 2:10을 참조하세요.

신은 창조자입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는 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목표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유지자, 모든 것의 목표 또는 종말입니다.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하나님은 충만함에서 창조하고, 충만함에서 인도하고, 전달된 충만함에 따라 되돌려받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저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종말을 인용하여 이를 잘 포착합니다.

존 파이퍼의 편집된 책, *그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에서 에드워즈는 그것을 잘 포착하여 인용합니다. 전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는 시작, 중간, 끝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체계화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한 성경적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주권적이며, 지혜롭고, 진실하며, 충실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관대하고, 오래 참으시고, 영광스럽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 자체 또는 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전달 가능한 속성, 5부입니다. 신은 영광스럽습니다.